

정부 신용등급별 대출한도 제한 등 심사기준 강화

‘햇살론’ 서민과 더 멀어지나

금융위, 부실을 높은 금융회사 불이익 검토

정부가 저소득·서민 전용 신용대출 상품인 ‘햇살론’의 부실을 막기 위해 대출심사 강화에 나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햇살론 부실률이 지나치게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정부가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대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은행연합회에서 서민금융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지원단 회의를 열고 햇살론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 지원되고,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여신심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금융위는 여신심사 강화를 위해 대출희망자의 신용등급별, 소득등급별로 햇살론 대출한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햇살론의 대출한도는 창업자금은 최고 5000만원, 사업 운영자금 최고 2000만원, 생계자금 최고 1000만원 등 용도별로만 분류돼 있다.

금감원은 또 금융감독원과 각 서민금융기관 중앙회, 미소금융중앙재단 등을 통해 대출 및 사후관리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실대출을 예방하고,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 및 업그레이드를 적극 지원해 여신

심사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부정대출을 막기 위해 대출희망자가 거주지나 직장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소재한 금융회사에서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제는 금융위가 햇살론 부실률이 지나치게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 햇살론의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필연적으로 대출문턱이 높아지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부실대출 제재에 나서면 금융기관으로서 대출을 간간하게 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서민들의 대출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더구나 기존에 30%대 고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했던 저축은행들이 공익성이 강한 햇살론 판매에 미온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 상품 판매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집계 결과 지난 16일 현재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각종 서민금융회사에서 판매된 햇살론(2286억원) 가운데 저축은행의 비중은 5.7%(130억원)에 그쳤다.

시민 박모(56)씨는 “서민 대출상품의 부실을 막고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당국이 햇살론에 대한 대출감독을 강화하면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직장인 절반

성희롱 경험

남성 피해도 24%

직장인들은 절반 가까이가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5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을 당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7.5%에 달했다.

여성 응답자는 75.9%(198명)가, 남성 응답자의 경우 24.1%(63명)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해자는 상사(73.6%)가 제일 많았고 이어 동료(13.8%)와 사내주(11.5%), 후배(1.1%)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경험자들은 60.9%가 지속적으로 성희롱이 일어난다고 말했고 일회적이었다는 응답은 39.1%에 그쳤다.

피해 유형으로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35.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연합뉴스

2000년 이후 수출 제조업 ↑ 서비스업 ↓

제조업 세계 12위→9위, 서비스업 13위→19위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은 크게 성장한 반면, 서비스업 수출은 추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최근 우리나라 수출 구조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은 2000년 세계 12위에서 지난해 9위로 3계단이나 뛰어 올랐지만, 서비스업 수출은 같은 기간 13위에서 19위로 무려 6계단 추락했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로, 미국(77.6%), 프랑스(77.2%), 영국(76.2%)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상의는 지적했다. 노동생산성도 우리나라는 1인당 3만달러 정도로, 미국(7만1000달러), 프랑스(5만8000달러), 영국(4만8000달러) 등에 한참 못 미쳤다.

보고서는 또 우리 수출 구조의 문

제로로 ‘대(對) 중국 수출 의존도 상승’과 ‘IT(정보기술)·자동차·철강 수출 집중도 심화’를 꼽았다.

보고서는 “2000년만 해도 미국, EU, 일본 시장이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으나, 2005년 이후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며 “중국 경기에 영향을 덜 받기 위해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기아 콘셉트카 ‘팝’ 내달 파리모터쇼 첫선



기아자동차는 18일 다음달 말 파리모터쇼에서 처음 선보일 콘셉트카 ‘팝(POP·사진)’의 외관 모습을 공개했다.

‘팝’은 기아차의 친환경 비전이 반영된 전기 콘셉트카로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무공해 3인승 자동차다.

기아차는 ‘팝’은 대중적 인기를 못

하는 말로, 친환경적이고 감각적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디자인됐다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기아차는 오는 9월 30일 파리모터쇼에서 팝의 제원 및 성능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 추석 시승단 모집

기아자동차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포르테 해치백, 쏘울, 그랜트카니발 등 총 350대의 귀향 시승차량을 준비하고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추석 귀향 시승단을 모집한다.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기아차 홈페이지(www.kia.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포스코는 18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패밀리 상생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고 정준양 회장 등 포스코 그룹사 대표들과 1·2차 협력 중소기업 대표들이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포스코 제공>

포스코도 협력업체 챙긴다

1·2차 협력사 2만6900곳과 상생 협약

7300억원 규모 금융펀드 대출 확대도

기아자동차, 삼성전자에 이어 광양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포스코도 18일 ‘협력업체 상생방안’을 내놔다.

포스코는 이날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1차, 2차 협력업체 2만6900여개사와 상생협력 협약식을 열고, ‘3T(Trust 상호신뢰, Together 동반성장, Tomorrow 미래지향)’ 상생경영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 있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들도 혜택을 보게 됐다.

포스코는 먼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1차 협력기업의 납품단가 조정내용이 2~4차 협력업체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계약약관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정기적으로 제품별·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해 협력업체에 다음 분기의 가격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포스코는 현재 조성해놓은 7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펀드에 대한 대출 대상을 기존 1차

에서 2~4차 협력업체로 확대한다. 또 1차 협력업체만 적용되고 있는 현금결제 방식을 2~4차 업체에도 적용되도록 제도해 나간다.

포스코는 특히 1차 협력업체에 대한 단가 조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 2~4차 협력사 상생협의체에 실시간으로 전달, 협력업체 간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기술 및 신기술도 공유한다. 포스코는 ‘특허기술 풀(Pool)’ 제도를 도입해 포스코가 보유한 친환경·에너지 등 녹색성장 분야의 특허기술을 중소 협력업체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실적호전 상장사 주가 수익률도 높아

광주·전남 10개 법인 평균 16.57% 증가

광주·전남 지역 상장법인 가운데 실적 호전 법인이 주가 수익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광주·전남 지역 12월 결산법인 13개사의 상반기 실적과 주가 등락’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한 10개사의 주가는 평균 16.57% 상승했다.

영업이익이 증가한 8개사의 주가는 평균 23.57%, 순이익 증가 10개사의 주가는 평균 12.88% 상승해 KOSPI 등락률(4.29%) 대비 초과수익률이 각각 12.28%P, 19.28%P, 8.59%P를 기록했다.

그러나 실적악화 법인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3개사의 주가는 평균 -16.76%, 영업이익 감소 5개사의 주가는 평균 -14.62%, 순이익 감소 3개사의 주가는 평균 -4.45%로 나타나면서 KOSPI 대비 초과수익률은 각각 -21.05%P, -18.91%P, -8.74%P를 기록했다.

매출증가를 상위 3개사의 주가 상승률은 대우에이텍(106.45%), 화천기공(9.97%), 대유신소재(-9.15%)

순이고, 영업이익의 증가율 상위 3사의 주가는 화천기공(9.97%), 부국철강(22.70%), 로케트전기(-4.82%) 등의 순이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761.99 (+6.96)
▲ 코스닥지수	478.33 (+0.68)
▼ 금리 (국고채 3년)	3.70% (-0.06)
▼ 원·달러 환율	1,174.20원 (-2.0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